

## ‘오락가락’ 稅政, 풀뿌리 기부 죽인다

### 조특법·세제 개편안에 복지·모금단체 ‘취침’

앞으로는 사찰과 불교계 복지기관에 자비행을 위한 기부를 하고도 세금을 예전보다 더 내야할지 모른다. 올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 예정인 세제 개편안 때문이다. 이들 조세 정책은 고액 기부자와 중산층 기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불교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신설된 제13조 2항이다. 이에 따르면 지정, 종교단체 기부금(대부분의 복지재단, 종교시설, 문화예술단체 해당)에 2500만원의 한도를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당장 타격이 있는 사회 모금, 복지, 비영리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영환, 원혜영 의원도 2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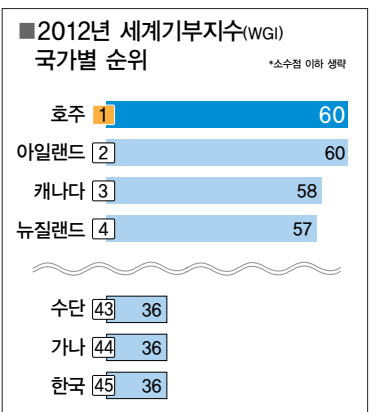
여론이 안 좋아지자 정부는 올해 8월 ‘2013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독소조항은 여전하다. 정부가 내년부부터 기부금 세금 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

꾸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기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고, 세액공제는 기부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해 준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부터 세액공제율을 15%로 정해 이보다 소득세율이 높은 중상위 소득자들은 세금 감면액이 줄어들게 됐다. 만약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봉 6000만원 소득자의 초과 기부금 세금 감면이 지금보다 적게는 9%에서 최대 23% 가량 줄어들게 된다. 조특법이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를 막았다면 세제 개편안은 활성화되고 있는 중산층 기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법정 기부만을 공제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다. 건전한 기부 문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단체를 통한 기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종교를 기반한 풀뿌리 복지·기부단체들의 고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기부문화가 다른 종교에 비해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불교계 역시 이 같은 조세 행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이 활성화되면 지난 10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 종교·지정기부금 대상 2500만원 한도 규정
- 고액 기부자 지급 단야
- 2013세제개편안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 기부시 9~23% 稅 증가
- 중산층 기부까지 축소
- 사립학교·복지재단 해당
- 불교계에도 적지않은 영향
- 법중단 대응책 마련해야

양적 성장을 해온 복지분야와 아름다운 동행의 출범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공익모금분야, 동문들의 기부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조계종립 동국대 등 불교계 사립 학교가 적지 않은 타격받기 때문이다.

실제 동국대 대외협력본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당장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정책이 지속됐을 경우 기부금이 상당 부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국대뿐만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 차원에서 반대 주장을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스님들은 소득세가 없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가불자들은 기부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재계 및 복지 전문가들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특법과 세제 개편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조특법과 세법개편안은 ‘조삼모사’ 식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기부금은 엄연히 다른 소득과 별개로 봐야 한다. 법을 개정해 지정 기부금을 한도액 적용대상에서 삭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5월 열린 기부문화 활성화 세미나에서 조특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크게 확대해 왔고 그에 따라 기부금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기부금 공제를 크게 제한하는 이번 개편은 세수 확보 효과에 비해 오히려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이대로 가면 그나마 씩을 떠났던 한국의 기부문화가 사라질 지경”이라면서 “대형 기업이 기부금이 집중될 경우 기부의 다양성과 건강성도 요원해진다. 이는 마치 대형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확충을 위해 반발이 많은 직접세 대신 기부금 등 기증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며 “종교를 떠나 현재 복지단체들이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조계종 원장 선거 후보군 압축

자승·보선 스님 양강구도에 도영 스님 변수



자승 스님, 보선 스님, 도영 스님, 대우 스님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유력 후보군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지난 9월 12일 금오문도회와 추대로 출마 의사를 밝힌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제외하고는 예상된 인물들이었다. 보선 스님은 지난 8월 30일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선부의 다양성과 건강성도 요원해진다. 이는 마치 대형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확충을 위해 반발이 많은 직접세 대신 기부금 등 기증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며 “종교를 떠나 현재 복지단체들이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스님도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금오문도회는 9월 12일 청주 법주사에서 ‘금오문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조실추대 회 차원에서 도영 스님을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도영 스님은 본지와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지만 문중의 뜻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다”며 “포교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행중흥 진작과 지계, 사회운동 등 한계를 느낀 부분이 적지 않다. 화합과 소통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 여론극복 자승 스님 과제 도영 스님 영향력 관심사

이번 도영 스님의 출마 결정이 선거 지형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오문도회 소속인 불국사, 법주사, 금산사의 주요 소임자들은 대부분 현재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과 보선 스님의 3자 연대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도회 측은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금오 문도의 위상을 세우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무원장 후보를 내놓자는 문중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도회 관계자는 “문도회의 어른들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종단을 여법하게 이끌 총무원장 후보를 추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3개 사찰이 한 목소리로 후보를 지지할 것도 문중 어른들의 의견이었다. 이를 문도회 대중이 뜻을 받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신종일 기자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누구?

전국 본사, 9월 25~29일 교구총회 개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총회가 9월 25~29일 연이어 개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18일자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총회 일정을 공고했다.

먼저 25일에는 직할교구(오후 2시 전통문화공연장)와 제2교구 용주사(오후 2시 관음전), 제3교구 신흥사(오후 1시 설법전), 제4교구 월정사(오후 2시 대법륜전), 제9교구 동화사(오후 3시 설법전), 제11교구 불국사(오후 2시 강원 대방), 제12교구 해인사(오후 2시 보경당), 제15교구 통도사(오후 2시 원통방), 제16교구 교운사(오후 3시 선체현관), 제21교구 송광사(오후 2시 사자루), 제23교구 관음사(오후 2시 선센터)가 교구총회를 연다.

이어 26일에는 제3교구 용주사(오후 2시 관음전), 제6교구 마곡사(오후 2시 연화당), 제18교구 백양사(오후 2시 교육관), 제24교구 선운사(오후 1시 회의실), 제25교구 봉선사(오후 2시 정풍루)가 교구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27일에는 제5교구 법주사(오후 2시 수련원)와 제19교구 화엄사(12시30분 화엄원), 28일에는 제8교구 직지사(오후 1시 설법전)와 제14교구 범어사(오후 3시 보제루) 제17교구 금산사(오후 4시 전불불교회관)가 교구총회를 연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7교구 수덕사(오후 1시 30분 심연당)와 제10교구 은해사(오후 2시 도선당), 제13교구 쌍계사(오후 2시 설선당), 제22교구 대흥사(오후 2시 만월당)에서 교구총회가 열린다. 신종일 기자



‘마음껏 사랑하세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7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가 9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음껏 사랑하라’를 슬로건으로 ‘내려놓기’, ‘어울림’, ‘바라는 마음’, ‘나누리’ 네 가지 테마로 축제의 장을 펼쳤다. 사진은 총지협 공동대표 의장 자승 스님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행사 개막식에서 떡을 절단하는 장면.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후보등록 소식은  
부터뉴스(hyunbulnews.com)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할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http://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개성·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